

보도일시 (인터넷) 2024. 7. 22.(월) 11:00,
(지면) 2024. 7. 23.(화) 조간

배포 2024. 7. 22.(월) 06:00

바다내비를 통해 100km 떨어진 연안선박에 다양한 안전운항 정보 제공

- 바다내비 「해양교통안전 라디오」 23일 첫 방송

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는 7월 23일부터 바다 내비게이션(이하 ‘바다내비’)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(LTE-M)을 활용하여 「해양교통안전 라디오」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.

동 서비스를 통해 연안 100km까지 나가 있는 선박에 육상의 라디오처럼 재난이 발생하거나 기상 악화되는 경우 안전운항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. 또한, 계절별 안전수칙과 어선 조업안전수칙 등 안전 정보와 선원 건강 관리 정보를 제공하여 해상 사고 예방 및 선원의 의료복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해양교통안전 라디오 서비스는 스마트폰에 바다내비 앱을 설치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, 바다내비 단말기가 설치된 선박에서는 9월부터 단말기를 통해서 서비스 청취가 가능하다. 10월까지의 시범서비스 운영 기간으로,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서비스가 제공되며, 정식서비스가 운영되는 11월부터는 매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. 실시간 방송을 놓친 경우 다시 듣기 기능을 통해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을 수도 있다.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12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기념사를 통해 “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먼 바다 위 종사자들에게도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.”라고 말했다. 한편, 강 장관은 라디오 서비스를 통해 송출되는 여름철 안전 캠페인 제작에도 직접 참여하여 바다에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를 강조했다.

담당 부서	해사안전국 첨단해양교통관리팀	책임자	팀 장	김인수 (044-200-6141)
		담당자	사무관	배철수 (044-200-6233)

참고1

「해양교통안전 라디오」 편성표 및 사용법

바다내비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서비스

해양수산부

바다내비 앱·단말기를 통해 바다 위 국민에게 정기(바다날씨, 안전캠페인 등)·
긴급(해양사고, 재난상황 등) 라디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정기 라디오 이용자가 선택 후 재생

긴급 라디오 자동 재생

편성표(안)

	시간	정보 내용	비고
정기(오전)	10:00~10:05	① 오늘 바다날씨 ② 구명조끼 착용캠페인 등	(시범서비스) 7월~10월 / 화·목 (정식서비스) 11월~ / 매일
수시	상황 발생 시	① 돌발해양교통정보 (해양사고, 재난상황 등)	
정기(오후)	17:00~17:05	① 내일 바다날씨 ② 건강관리 정보, 안전캠페인 등	

라디오 사용법(앱)



① 하단 탭의 라디오 메뉴
또는 라디오 아이콘 클릭



② 라디오 서비스 중 실시간으로
표시된 채널 클릭



③ 채널 접근 및
재생버튼 클릭



④ 정기 송출시간에 청취하지 못한
콘텐츠는 '다시듣기' 기능을 통해 재청취 가능



긴급라디오(해양사고 등)
송출 시 팝업 알람이 표시
되면 라디오 아이콘이
활성화 되고 자동 송출

참고2

해양교통안전 라디오 콘텐츠 제작 사진

